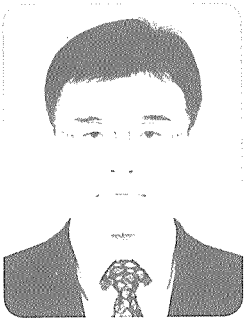


글로벌화 왜 중요한가?



은 기 운
(매일경제신문사 경제학박사)

지난 3월초 미국의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 대상 품목 선정 과정에서 기업활동의 글로벌화가 품목선정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측은 당초 포스코의 주력 제품인 열연코일을 관세부과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인 것으로 우리측에 통보해 왔다. 그러나 막판에 이를 제외시켜 13개 품목군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우리측에 다시 통보해와 정부와 마스크를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했다. 미국측이 열연코일을 막판에 뺀 결정적 이유는 두 가지로 알려지고 있다.

하나는 포스코가 한국기업이 아니라 미국기업이라는 포철측 주장과 설득을 미국측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포스코의 외국인 지분율은 현재 62% 정도다. 이중 특히 미국인의 지분은 70%에 달한다. 이렇게 본다면 포스코의 최대 주주는 당연히 미국인이며 포스코는 한국기업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미국기업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수 있다. 따라서 포스코의 주력제품인 열연코일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결국 자국기업에 수입규제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일이다. 이 때문에 결국 미국측이 75만톤 규모의 포철 열연코일에 대한 관세부과를 철회할 수 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이유는 합작공장 설립이 규제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포스코는 미국 US스틸의 합작 공장인 UPI에 열연코일을 공급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 최종재 생산에 쓰이는 중간재적 성격을 가진다. 이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미국 스스로 UPI가 생산하는 자국산 최종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자국산업의 희생을 무릅쓰고 미국측이 추가관세를 부과할 수 없었을 것임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포스코의 이번 사례에서 우리는 기업의 글로벌화가 통상압력 수단으로서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를 확인한 셈이다. 국내기업이 외국기업과 전략적 제

휴를 뺀 해외에 공장을 설립하는 일, 혹은 외국인이 국내기업에 투자를 하거나 공장을 설립하는 일 모두 기업 글로벌화의 한 단면이다. 이런 것들은 모두 국내기업들이 외국의 수입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최대의 무기가 된다.

시각을 다소 바꿔 현재 최대 현안으로 돼 있는 대우자동차를 제너럴모터 스(GM)에 매각하는 것이 다른 대안보다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보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통상압력 회피다.

GM이 지난해 체결된 양해각서(MOU)대로 대우차 신설법인의 지분을 67%로 획득하는 조건으로 대우차를 인수하게 되면 대우차는 실질적으로 미국기업이 되는 셈이다. 이런 쪽으로 문제가 매듭되면 미국측이 그동안 줄곧 우리측에 제시해온 자동차 관세 인하(현행 8%에서 2.5%)와 배기량에 따른 자동차세 차등 부과 시정 등의 요구를 더 이상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기업의 글로벌화는 외국인 투자 유치 노력에 긍정적 기여를 하며 한국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촉매로 작용할 수도 있다. 필자가 최근 지방산업활성화 관련 토론회에서 들은 바로는 최근 설치된 군산자유무역 지역의 활성화 여부는 결정적으로 대우차의 GM매각 성사여부에 달려있다고 한다. GM의 대우차 군산공장 인수가 확정되면 군산자유무역지역에 자동차 부품공장을 설립하겠다는 외국인들이 수십사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는 물론 군산지역의 자동차부품 산업이 활기를 떨 수 있음은 물론이다.

현재는 대우차가 GM에 매각이 될지 어떨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를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얼마전 김대중 대통령이 "큰 외국자본이 들어오면 1개 사단이 있는 것보다 안보에 도움이 된다"라고 했듯이 군사·안보 면에서도 기업의 글로벌화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외국기업들이 다수 우리나라에 공장을 설립해 생산활동을 하고 더구나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대로 다국적기업의 영업본부까지 늘어나게 된다면 예컨대 미국이 한국에서 전쟁이 발발하도록 유도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여러 가지 점을 종합해볼 때 국내기업의 해외 매각을 지나치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안된다고 본다. 상당수 사람들은 기업의 해외매각을 우리측은 손해를 보고 외국측은 이득을 보는 이른바 '제로섬'게임으로 여기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기업의 해외매각도 글로벌

벌화의 한 단면으로 내외국인이 모두 이익을 얻는 '원원전략'의 하나로 여기는 것이 오히려 올바른 시각일 것이다. 3년이상 장기표류하고 있는 대우차 문제도 이런 시각에서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여겨진다.

글로벌화와 관련해 최근 주목을 모으는 것은 최근들어 국내 대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가 활기를 띠고 있다는 점이다. 삼성SDI는 지난 3월 중국에 형광표시판 공장을 준공했고, 작년 6월 네덜란드에 현지법인을 설립한 바 있는 LG전자는 최근 중국의 PDP-TV 공장을 증설·가동했다. 현대자동차는 미국에 연간 30만대 규모의 공장을 건설할 계획을 확정지은 상태며, 포스코는 중국에 합작공장을 잇따라 증설하고 있다.

외환위기후 한동안 국내기업들은 구조조정에 치중해 온데다, 세계경기가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원화가치도 비교적 안정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해외투자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구조조정이 진전되고 세계경기가 살아나며, 국가신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해외투자는 늘고 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작년 1분기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건수는 총 437건이었으나 4분기에는 486건으로 늘었고, 투자금액은 1분기 2억 8800만 달러에서 4분기 4억 3000만달러로 증가했다.

기업들의 해외진출 현상이 심화될 경우 이는 국내산업의 공동화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고용과 산업활동 나아가 경제성장이 위축되는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 특히 해외투자의 주된 동기가 국내의 고생산비나 각종 규제 등의 회피에 있다면 그것은 국내산업에 적지않은 후유증을 안겨다 줄 수 있다.

그러나 통상압력 회피나 선진기술도입, 원자재확보 등이 진출의 주된 동기라면 이는 적극 권장돼야 마땅하다.

해외투자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다. 그러나 정부는 해외투자가 어째서 늘어나고 있는지 그 요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적절한 정책대응을 해야 한다. 해외 진출이 국내에서 사업하기가 어려워 이뤄지는 '탈출형'의 것이라면 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마땅하다. 그러나 통상압력 회피나 자원활용 등이 목적이라면 이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